

대장직장암 선별검사로서의 분변잠혈검사

배우경, 심병택, 이동률, 장유수, 김규남, 김종성, 유태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대장직장암은 모든 암 중 남녀 모두 네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별검사 방법 중 하나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잠혈검사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으며, 분변잠혈검사법이 구아이어 방법에서 라텍스 응집법으로 바뀐 이후, 검사 결과의 임상적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이에 일개 병원 건강증진센터 수진자를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 결과와 대장직장암 발병 상황을 분석하여 선별검사로서의 분변잠혈검사 결과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법: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일개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중 한국중앙암등록 사업에서 대장직장암으로 등록이 된 사람과 해당 병원에서 대장직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을 찾아 민감도, 특이도, 양성, 음성 예측도를 구한다. 구아이어 방법을 시행한 수진자와 라텍스 응집법을 시행한 수진자를 비교하고, 50대를 기준으로 연령별 수진자를 서로 비교한다.

결과: 총 대상 인원은 24,739명이었으며, 그 중 분변잠혈검사상 양성인 경우는 552명, 대장직장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58명이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 후 2년 이내에 대장직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만을 고려할 경우 민감도, 특이도, 양성, 음성 예측도는 각각 56.4%, 97.6%, 4.0%, 97.8%였다. 구아이어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는 각각 26.7%, 98.6%, 4.6%, 99.8%였고, 라텍스 응집법으로 검사한 경우는 각각 63.6%, 98.7%, 8.9%, 99.9%였다. 50대 이전의 수진자에서는 각각 0%, 98.0%, 0%, 99.9%였고, 50대 이후의 수진자에서는 각각 63.0%, 97.5%, 5.9%, 99.9%였다.

결론: 이번 연구에서 대장직장암에 대한 분변잠혈검사의 양성 예측도는 4.0%로 나타났으며, 특히 라텍스 응집법으로 검사한 경우와 50대 이후 수진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더욱 높게 예측된 것으로 보아, 분변잠혈검사 양성자의 경우 대장직장암 검사를 위해 대장내시경, 대장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장직장암 선별검사로서의 분변잠혈검사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병률, 검사 비용, 대장직장암의 사회 비용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단어: 잠혈, 대장직장종양, 선별검사